

'제1회 다도구 특별 워크숍'

지난 8월 19~20일, 경주 기림사(주지 종광)에서는 도예가와 차인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다. 월간 <Tea&People>과 기림사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다도구 특별 워크숍'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도예가와 차인 100여 명이 참석해 우리 찻그릇에 대한 정체성과 방향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 현장의 이모저모와 이날 발표된 2편의 글을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8월19~20일 경주 기림사에서 열린 '제1회 다도구 워크숍'에 참가한 차인과 도예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도예가·차인의 아주 특별한 만남

다구의 정체성·방향에 대해 토론
홍재표 옹, 전통물레 시연 등 행사

태풍 메기가 한반도를 휩쓸고 간 뒤인 19일, 예상치 못했던 기상으로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더디게 기림사로 모였다. 하지만 태풍도 이들의 차에 대한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약천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넘게 모인 참가자들에게 월간 <Tea&People> 신회호 발행인은 "이번 워크숍은 차인과 도예가의 만남이자 이 시대 찻그릇을 만드는 도예가들의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며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함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다도구

특별 워크숍'을 통해 우리 도예가 새로운 이 시대의 문화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반겼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제1부 '특감 및 주제 발표'에서는 차문화공예연구소 김동현 소장이 '다도구의 기능과 특성'을, 월간 <Tea&People> 편집위원인 이병인 교수(밀양대)가 '다도구 도예가들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2부 열린 '다도구 작품전시 및 감상'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대표 작품과 차인 소장 다구를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서로의 감상과 의견을 나누었다.

저녁 6시부터 진행된 3부 '토론 및 대화' 시간에는 법심 스님(부개사 주지)의 인사말에 이어 원로 도예가 홍재표(73) 옹의 다구

제작 시연이 열렸다. "욕심을 버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홍 옹은 60여년 동안 지켜 온 전통물레를 직접 가져와 시연을 펼쳐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의 열기는 밤이 깊을수록 더해갔다. 일송요 황동구 대표의 '찻사발의 특성과 제작과정' 강의는 자신의 체험과 다기를 만들어 느꼈던 의문점을 함께 풀어보는 토론 회로 이어져 10시까지 계속됐다.

경주 백암도예의 박승일(33) 대표는 "다른 지역 작가들과 만날 기회가 드물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함께 작품도 감상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선배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재직으로 삼아 앞으로 더 좋은 찻그릇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문화공예연구소 김동현 소장의 강의.



원로 도예가 홍재표 옹의 전통물레 시연 모습.



참가자들이 서로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주제

■ 다도구 도예가들을 위한 제언
-이병인(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세계화라는 큰 변화의 바람 속에서 다도구도 시대적인 기능과 특성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내적으로는 자기만의 형태와 질감의 창조가 필요하겠지만, 이에 더해 시대적 특성과 기능을 갖는 명품(名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거나 잘 팔리는 도예가의 작품을 모 특성·기능성 갖춘 명품 만들어야

방해서는 안된다. 전통도예의 경우에도 단순한 재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특성을 드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날 차도구를 만드는 도예가들은 시대의 문화적 특성과 흐름을 이해하고 차문화의 큰 흐름에 동참할 줄 알아야 한다. 단순히 자신만의 차도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를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명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 찻사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황동구(일송요 대표)

진정한 도예가는 도를 닦는 수행자와 같이 찻사발이라는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좋은 찻잔이란 무엇인지 모르는 차인이나 도예가들도 있다. 이 시대 같은 다도구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찻사발을 만드는 데 있어, 찻사발의 안속이 너무 좁거나 평평하면 차가 잘 풀리

안속 완만한 곡선으로 이뤄져야

지 않으므로 완만한 곡선을 이뤄야 한다. 또 찻사발 안속의 회돌이(소용돌이) 부분을 깊이 물레질하거나 옛 그릇을 흉내 내기 위해 굽은 실선을 사용해 그 경우 그 자리에 차의 가루가 남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릇의 형태에 따라 약하게 하거나 너무 깊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안속 바닥부터 입구까지는 부드럽게 만들어 차를 잘 마실 수 있다. 안쪽 면을 다듬을 때 손가락에 힘을 주어 걸친 자국이 남게 되면 차가 쉽게 흘러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주=여수영 기자 shoooy@buddhapia.com

우리 사찰 차 모임

경기불교문화원
다도반

생활에 필요한 茶法 교육



경기불교문화원 다도반 회원들이 차비비기 다도체법을 하고 있다.

찌는 듯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사찰이나 각종 단체의 차 교육 현장도 배움의 열기로 넘치게 된다.

9월 1일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경기불교문화원 다도반을 지난 8월 26일 찾았다. 다도반을 이끌고 있는 윤영예(45) 사범은 "최근 차에 대한 관

소품만들기·혼례 예절 등 꼼꼼히 지도 현장 수업 겸비해야 사범 수료 가능

심이 높아지면서 수강생들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혹시라도 교육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30여 명이 공부하고 있는 경기불교문화원 다도반은 지난 2002년 문을 열었다. 교육은 초급 6개월, 중급 6개월, 사범교육 2년 과정으로 이뤄진다. 초급과 중급반은 생활 속에서 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다법 위주로 가르치고, 사범교육은 한국차문화협회의 사범교육 커리큘럼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차문화협회 수원지부 장이기도 한 윤 사범이 했다수업

도반 수강생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현장에서 차 교육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범을 길러내는데 다도반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윤 사범은 "늘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용주사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수원여성지도자연합회 행사 등에서 차시연을 펼치기도 한 다도반 회원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널리 회향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차향만큼이나 널리 퍼져나가기 기대해 본다.

(031)251-1083

인터뷰

운영에 사범



초발심 잃지 않으려 노력

"제가 처음으로 차를 대접해 주신 한 스님께서는 '차란 나누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야 그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 수원지부장이기도 한 윤영예 사범은 경기불교문화원 뿐만 아니라 수원시 예절관과 장안고등학교, 이천 해통사 등에서도 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다도 포

여수영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음블, 설비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당 하 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 (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 (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운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활액순환장애 디스크

선천성 병체 산후비탈 남 습진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쉬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셔야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신창)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간(肝)

간지방간염
간경화

건강애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옹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마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담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를 분쇄하여 기마술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더린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를 항아리에 넣고 원경 97마리를 담은 뒤 원경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 데 원경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